

2020년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이해명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추석·감·사·예·배

가정예배 지침

- 1) 제사는 죽은 영혼에 대한 것이나 추모예배는 고인을 회고하며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을 지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 2)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예배의 경우 고인의 사진을 세워 놓고 고인이 쓰던 성경, 찬송가 또는

유품을 펼쳐 놓은 뒤 주변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3)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누는 뒤 소박한 상품과 함께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가정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경배와 찬양 67장(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에스라 3:1~6.....	가족 중에서
설교	아직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었지만.....	설교자
축복의 마음 나누기		다같이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종보기도		다같이
찬송	경배와 찬양 12장(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아직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었지만

들어가는 말

금년 추석은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한 명절입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고향 방문도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고, 성도들은 예배당 출입과 예배가 제한되었고,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 마음껏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

던 기쁨을 보류한지도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추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여서 제단을 다시 지으며”

이스라엘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그들의 오만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70여년 만에 다

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파괴된 성전도 다시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재건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는 것보다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영적 준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모여 제단부터 다시 만들었던 것입니다(1-2절). 여기서 ‘일제히’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며, ‘제단을 다시 짓기’란 예배의 갈망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모이기도 어렵고, 예배당 출입도 단절되었지만, 공동체로서의 영적 연합과 예배의 갈망마저 차단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공동체적인 연합과 다시 예배를 시작하려는 결심이 오늘 추석 명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엠티의 기초 위에 제단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파괴된 솔로몬 성전의 ‘엠티의 기초’ 위에 만들어진 제단을 세웠습니다(3절).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반제를 드렸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으며, ‘법령에 정해져 있는 횃수대로’ 반제를 드렸습니다(4절).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또한 그것이 다시 복구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배가 불가능하거나 중단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는 ‘엠티’라는 ‘성령’이 이끄시는 기어 위에서, ‘기초’라는 ‘말씀’이 인도하는 믿음 위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

배입니다(요 4:23-24). 우리가 함께 모여 만날 수 없고 예배당이라는 실체가 아직 없을 지라도 우리는 성실하게 ‘아침과 저녁으로’ 기록된 대로, 법령에 정해져 있는 횃수대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는 헌신이 오늘 추석 명절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 됩니다.

“아직 성전 기초가 놓이기 전이었지만”

솔로몬의 엠티 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2절). 이스라엘은 그의 통솔에 따라 정교적인 예배를 구별해 드렸고, 모든 절기의 예물도 끊임없이 올려드렸으며, 무엇보다 초막절 절기를 회복하였습니다(5절).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아직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6절).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 구심점 없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며 미래의 비전을 밝혀준 스룹바벨 성전은 이미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 실재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팬데믹 사태가 지나고 나면 온전한 공동체와 예배를 이루리라는 다짐보다 아직 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삶 자체로서 성전이 되는 것이 오늘 추석 명절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 됩니다.

나가는 말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아직 성전 기초가 놓이기 전’과 같은 막막한 현실 같아 보이지만 다시 일제히 예배드리기를 결심하며, 다시 온전한 예배드리기를 헌신하고, 다시 삶 자체가 성전이 되리라는 비전을 품는 이 시대의 스룹바벨과 같은 우리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모·예·배

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시편 145:1~4.....	다같이
찬송	찬송가 435장(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5:1~4.....	가족 중에서
설교	부활의 삶을 사는 인생.....	설교자
찬송	찬송가 380장(나의 생명되신 주).....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부활의 삶을 사는 인생

들어가는 말

고인이 우리의 곁을 떠나가신지 00주기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추모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고인은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이 시간은 단지 지나간 고인의 과거를 회상

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남겨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1절).

사도 바울은 만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두려움이나 비관적인 슬픔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격스런 환희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믿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장막집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뿜고자 하고 앞으로 만든 초막이나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진 성막에 거하심에 기원합니다. 초막이나 장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행의 목적지가 이곳 광야가 아니라 영구토록 거해야 하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소중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살거나 이 땅의 현실에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집으로 덧입기를 사모합니다”(2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향에 대한 믿음은 단지 죽음 이후 삶으로 국한되지 않고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과 ‘덧입고자 함이라’는 고백은 이 땅의 삶을 허무주의적인 태도로 회피하거나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덧입고 살기를 바라는 경건하고 적극적인 신앙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의 영광을

덧입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고 합니다”(4절).

사도 바울이 벗은 자가 아닌 덧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사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부활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강한 의지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는 죽어가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도처에서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가는 말

우리가 지금 고인을 추모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덧입고 살기를 사모한다는 것이요, 이 땅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하며 살겠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인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 우리 모두 부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